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Vol. 8 No. 3 (December 2018), 37-47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인식, 관심 및 요구도 조사

홍소영*

*고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국문초록 —

목적 : 본 연구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인식, 관심 및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 전국 492명의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년 07월 01일부터 2018년 07월 31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인식, 관심 및 요구도는 기술통계를 하였다. 학년, 연령에 따른 문항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one way ANOVA와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결과: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치매국가책임제 인식도는 2.61±1.011점, 치매안심센터 인식도는 2.84±0.9점 작업치료사의 역할 인식도는 2.94±0.9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 역할의 중요성 인식도는 행정 분야 4.14±0.7점, 가족 및 환자 상담 분야 4.19±0.7점,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 분야 4.30±0.6점이었다. 관심도에서 취업의사는 3.42±0.9점, 작업치료사의 전망은 3.90±0.7점으로 나타났다. 요구도에서 교육의 충분도는 2.98±0.8점, 실습의 충분도는 3.07±0.8점이었다.

결론: 본 연구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인식, 관심 및 요구도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치매 전문작업치료사에 대한 기초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관심도, 요구도, 인식도, 치매안심센터

T. 서 론

치매는 뇌기능 손상으로 기억력, 지남력, 이해력, 언어 기능, 계산능력, 판단능력 등이 저하되어 일상생활활동 수 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치매는 환자 자신의 삶의 질 저하 뿐 아니라 장기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심각한 질환이다(Suh, & Oh, 1993). 보건, 의료 부양과 관련하여 치매 환자의 총 의료비용은 연평균 약 735만 원으로 비치매 환자와 비교하 였을 때 약 2.18배 높았고(Oh, 2015), 치매 환자의 가족은 간호 비용으로 가정경제의 7~8%를 지출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Choi, 2007). 2017년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8%로 치매환자의 증가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2030년에는 약 127만 명으로

교신저자: 홍소영(redcow@hanmail.net)

접수일: 2018. 11. 20. 심사일: 2018. 11. 21. 게재승인일: 2018. 12. 24.

예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a).

이와 관련하여 OECD 국가들은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Hwang, 2018). 일본의 경우 대상자 중심 의 정책 시행, 고령 친화적인 지역 만들기, 조기진단 대응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고(Lee, 2016), 독일에서는 치매 환자에 대한 케어의 양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법령 을 제정하거나 수정하여 추진 과제를 실천해 왔다 (Sunwoo, 2013).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비영리단체에서 치매 마을을 운영 중이며 치매 환자들 간의 교감으로 심 리적 증상을 조절하도록 하였다(Hwang, 2018).

우리나라의 치매관리정책은 2008년 9월 치매종합관리 대책(2008~2014)을 발표하면서 시작 되었다(Kwak, 2018). 2012년 치매관리법 시행으로 중앙 치매센터가 설 치되었고, 점차 확대되어 2016년 전국 17개시·도에 광역 치매센터가 설치완료 되었다(kim, & Lee, 2014). 이후 전 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주요 사업으로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의료비 지원, 조기검진 등을 진행하였다(Kim, 2015). 2017년 9월 정부는 치매 국 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보건복지부, 2017a),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였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상담/등록 관리팀, 조기검진팀, 쉼터 팀, 가족지원팀, 인식개선·홍보팀으로 이루어져 있 다. 치매 환자에게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치매 단기쉼 터 및 치매 카페 운영과 같은 관련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 고 있다. 전문 인력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되며 작업치료사는 필수로 1명 이상을 채용하게 되어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 고 인지 재활 프로그램, 치매 예방교실, 치매 가족 상담을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보건복지부, 2017b).

치매의 심각성과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역할이 요구되 고 있으며, 국내 실정에 맞는 직무분석과 중요 책무, 수행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Jeong, Park, & Hwang, 2013). 관련된 선행연구로 Cha와 Jeon (2012)은 지역사회 에서 작업치료의 업무 특성을 연구하여 작업치료사의 역 할 정립, 치료 외의 행정적인 업무, 프로그램 기획력, 고 용 불안정성을 문제로 보고하였다. 지역사회 치매 작업 치료사의 직무를 분석한 Jeong, Park과 Hwang(2013)은 전문가로서 주된 역할 확립과 직무 강화 교육의 필요성 을 제시하며 작업치료사의 전문적 역할을 제시할 수 있 는 관련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치매안 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는 필수인력으로 지정되어 작업 치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도입된 지 얼마 되 지 않아 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은 향후 치매안심센터의 주요 주 체가 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 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치매안 심센터에 대한 인식, 관심 및 요구도를 조사하여 향후 치 매안심센터에서 작업치료를 제공하는데 전문가로서 역 량 강화와 치매안심센터 내 작업치료사의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8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연구 참 여에 동의한 전국 24개 대학(교)에서 총 492명의 작업치 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전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요령에 대하여 제공하였고 대 상자가 연구에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하 였다. 대상자는 임의표집 하였고, 온라인설문을 통해 조 사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남성은 132명(26.8%), 여성은 360명(73.2%)이었다. 3년 학제의 응답자수는 185 명(37.6%), 4년 학제 응답자수는 307명(62.4%)로 나타났 다. 거주 지역은 수도권(25.6%), 대구/경북(21.3%), 부산/ 울산/경남(21.2%)순으로 많았다(Table 1).

2. 연구도구

1) 설문지 개발과정 및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문헌고찰을 실시한 후 치 매안심센터의 특성에 맞춰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은 일반적 특성 6문항, 인식도 17문항으로 총 23문항이었으 며, 이후 작업치료학과 교수 1인과 치매안심센터에서 근 무 중인 작업치료사 2인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 문을 구해 문항을 인식도, 관심도, 요구도로 분류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rs

	Characteristics		Participants(N)	%	
	0.11	1grade	75	40.5	
	College (185)	2grade	71	38.4	
		3grade	39	21.1	
Grade		1grade	95	30.9	
	University	2grade	76	24.8	
	(307)	3grade	84	27.4	
		4grade	52	16.9	
Age	21≥		260	53.0	
	22≤		232	47.0	
Gender	Male	Male		26.8	
Gender			360	73.2	
	Seoul, Gyeonggi, Incheon		126	25.6	
	Gangwon, Jeju		51	10.4	
Dogion	Daejeon, Chungcheong		60	12.2	
Region	Gwangju, Jeolla		46	9.3	
	Daegu, Gyeongsangbuk-do		105	21.3	
	Busan, Ulsan, Gyeongsangnam-do		104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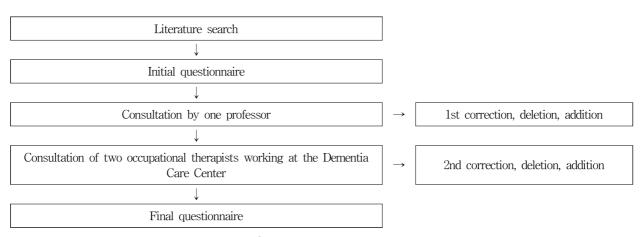


Figure 1. Questionnaire development process

문항을 세부적으로 수정하고 관심도 1문항을 추가하여 일반적 특성 4문항, 인식도 8문항, 관심도 6문항, 요구도 4문항으로 최종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Figure 1). 일반적 특성과 일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Likert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는 "전혀 모른다" 1점부터 "매우잘 알고 있다" 5점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가 아닌 항목은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알게 된 경로, 취업하고 싶은지역, 취업하고 싶은지역 선택이유, 취업하고 싶지 않은이유, 예상급여, 관련성이 높은 교과목, 추가되어야 할 교과목이다(Table 2). Cronbach alpha는 0.68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20.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모든 문항에서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Likert 척도를 사용한 문항은 기술통계와 평균을 추가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학년, 연령에 따른 문항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과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Table 2. Survey Questions

Category		Questions
Characteristics	1~4	Grade/ Age/ Gender/ Region
	1	How much do you know about National Responsibility for Dementia?
	2	How much do you know about Dementia Care Center?
	3	How do you get information about the Dementia Care Center?
	4	How much do you know about the role of an occupational therapist in the Dementia Care Center?
Awareness	5	How important is the role of the occupational therapist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Dementia Care Center (Improved awareness/ case management / community support project)?
Tiwareness	6	How important is the role of the occupational therapist in the family and patient counseling of Dementia Care Center?
	7	How important is the role of the occupational therapist in the cognitive rehabilitation of Dementia Care Center?
	8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workload of an occupational therapist working at the Dementia Care Center?
	1	Do you want to work in the Dementia Care Center?
	2	Where do you want to work?
	3	Why did you choose the area?
Interest	4	Why do not you want to work for Dementia Care Center?
	5	How much do you think is the salary of an occupational therapist working at the Dementia Care Center?
	6	What do you think of the occupational therapist's outlook at the Dementia Care Center?
	1	After graduation, do you think that you have learned enough education at the school to work at Dementia Care Center?
Need	2	What are the most relevant subjects for the Dementia Care Center?
	3	What subjects do you think should be added to work at the Dementia Care Center?
	4	Do you think that Field-work at school is enough to work at the Dementia Care Center?

Ⅲ. 연구 결과

- 1.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인식. 관심 및 요구도
- 1)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인식도

인식도 8문항 중 치매국가책임제의 인식도를 묻는 문 항은 2.61±1.0점, 치매안심센터의 인식도는 2.84±0.9점 이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 역할의 인식도는 2.94±0.9점이었다. 작업치료사의 역할의 중요성 인식도 (행정, 가족 및 환자 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각 4.14±0.7점, 4.19±0.7점, 4.30±0.6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추가 질문으로 치매안심센터 인식도에서 "보통이다 (3점)" 이상으로 답한 응답자에게 알게 된 경로를 물었을 때, 42.2%의 학생들이 교수님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이후 각종매체(40.3%), 기타(7.3%) 등이 뒤 를 따랐다(Figure 2).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작업치료사의 업무 부담은, 38.6%의 학생들이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답했으며, 평가(22.0%), 상담(13.8%), 보호자 교육(11.0%), 자료개발(10.0%), 행 정 업무(4.6%)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3).

2)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관심도

인식도에서 치매안심센터 취업 의사를 묻는 문항은 3.42±0.959점,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전망에서는 3.90±0.769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취업을 하고 싶은 지역에 대한 추가 질문에서는 서울·경 기·인천이 4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각 지역을 선택한 이유로는 현재 거주 지역이기 때문(62.0%), 교통의 편리성(14.8%) 등이 있었다. 취업을 희망하지 않은 54명에 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관심분야가 아니기 때문(81.1%), 경제적 이유(11.3%) 등으로 나타났다. 치매안심센터 작업 치료사의 급여는 응답자의 60.4%가 월 150-200만원이라 고 예상했다(Figure 4).

Table 3.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s Awareness, Interest and Need

	Category	$M\pm SD$
	National Responsibility for Dementia	2.61±1.0
	Dementia Care Center	2.84±0.9
A	Role of an occupational therapist in the Dementia Care Center	2.94±0.9
Awareness	The importance of occupational therapist role in administration	4.14±0.7
	The importance of occupational therapist role in family and patient counseling	4.19±0.7
	The importance of occupational therapist role in cognitive rehabilitation	4.30±0.6
Interest	Employment	3.42±0.9
	Outlook of occupational therapist	3.90±0.7
Need	Education	2.98±0.8
need	Field-work Sufficiency	3.0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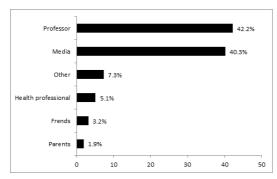


Figure 2. Information sou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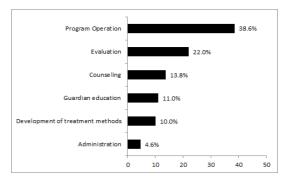


Figure 3. Biggest workl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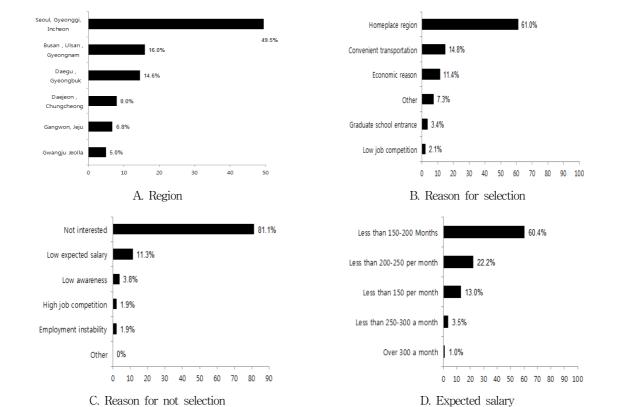


Figure 4. Interest to the Employment

3)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도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기 위한 학교 교육의 충분도 는 2.98±0.8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실습의 충분도는 3.07±0.8점이었다(Table 3).

치매안심센터와 가장 관련 높은 교육으로 응답자의 43.0%가 인지 재활이라고 응답했다. 추가 교육에 대한 질문에서도 인지 재활이 2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고, 프로그램 개발(22.0%), 지역사회 작업치료(19.9%), 작업치료 평가(18.7%), 상담(16.1%), 기타(0.6%)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5).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1) 학년에 따른 차이

4년제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인식도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인식도에서 학년별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고(t=5.763, p=.001), 사후 분석 결과 1학년과 4학년 (t=-.631, p=.004), 2학년과 4학년(t=-.657, p=.004)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치매안심센터의 인식도 또한 학년 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5.969, p=.001), 1학년과 3학 년(t=-.513 p=.005), 1학년과 4학년(t=-.534, p=.01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따른 인식도 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나(t=3.141, p=.026), 1학년과 3학년 (t=-.402, p=.032)에서 차이를 보였다. 관심도에 따른 차 이는 취업 의사에서 1학년과 4학년(*t*=-.708, *p*=.010)간의 차이를 보여 유의하게 나타났다(t=6.996, p=.000). 요구 도에 따른 차이는 실습의 충분도에서 학년별 차이가 유 의하게 나타났고(t=4.317, p=.005), 그 중 1학년과 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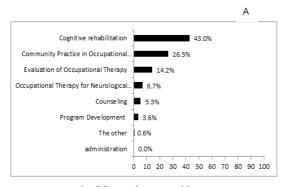
(t=-.502, p=.010), 2학년과 4학년(t=-.465, p=.029)간의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또한 추가로 원하는 교육 에서 유의하게 나타나(t=2.806, p=.040), 1학년과 4학년간 의 차이를 보였다(*t*=-.864, *p*=.047). 프로그램 개발에서 1 학년 15.8%, 4학년 29.4%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고, 신 경계 작업치료는 1학년 12.6%, 4학년 1.9%로 두 학년 간 의 차이를 보였다(Table 5).

3년제 학생들은 인식도 차이는 없었으나 추가 교육에 대한 요구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871, *p*=.001). 지역사회 작업치료에서 1학년 18.7%, 2학년 31.0%로 차이 를 보였고(p=.024), 2학년(31.0%)과 3학년(15.4%)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2). 상담에서 1학년 28.0%, 2학년 8.5%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03), 프로그램 개발은 2학년 18.3%, 3학년 35.9%로 차이가 나타났다 (p=.001)(Tabl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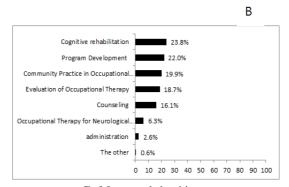
2) 연령에 따른 차이

응답자 492명의 빈도를 고려하여 21세 이하인 집단과 22세 이상인 집단의 연령에 따른 인식, 관심 및 요구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치매국가책 임제 인식도(p=.026), 치매안심센터의 인식도(p=.005)에 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의사(p=.011)가 많았고, 연령이 낮은 집단이 임상실습이 충분하다고 응 답하였다(p=.011).

치매안심센터를 알게 된 경로는 21세 이하에서 각종매 체(21.5%), 22세 이상에서 교수님(26.3%)이 가장 높은 응 답률을 보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2). 치매안심센 터에서의 업무 부담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p=.001), 상담에서 21세 이하 10.1%, 22세 이상 3.6%로 가장 많은



A.. Most relevant subjects



B. More needed subjects

Figure 5. Need for Education

Table 4. Difference according to grade of university students

Category	Grade	$M\pm SD$	t/F
	1	2.53±0.9	
Avvorances of National Degraporalbility for Demontic	2	2.50±1.0	···· 5.763**
Awareness of National Responsibility for Dementia	3	2.74±0.9	··· 3.705
	4	3.16±0.9	•••
	1	2.64±0.9	
A	2	2.83±1.0	
Awareness of Dementia Care Center	3	3.15±0.8	··· 5.969**
	4	3.18±0.8	••••
	1	2.80±0.9	
^	2	3.08±0.9	0.141*
Awareness of importance of occupational therapist role	3	3.20±0.8	3.141*
	4	3.02±0.9	
	1	3.12±0.9	
Internation to the Development	2	3.47±0.8	 C 00C**
Interest to the Employment	3	3.43±0.9	··· 6.996**
	4	3.82±0.9	••••
	1	3,17±0.8	
E 11 1- C C C :	2	3.13±0.8	4.017**
Field-work Sufficiency	3	3.01±0.8	4.317**
	4	2.67±0.9	

^{*}p<.05, **p<.01

Table 5. Difference according to more needed subjects of university students

Catagory	Grade N(%)					4 /E	
Category	1	2	3	4	Total	l/Γ	
Occupational Therapy for Neurological Disorders	12(12.6)	6(7.9)	2(2.4)	1(1.9)	21(6.9)		
Cognitive rehabilitation	26(27.4)	15(19.7)	27(32.1)	11(21.5)	79(25.8)		
Community Practice in Occupational Therapy	19(20.0)	14(18.4)	15(17.9)	8(16.0)	56(18.3)		
Evalu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5(5.3)	13(17.1)	6(7.1)	4(7.8)	28(9.1)	2 2006*	
Counseling	17(17.9)	10(13.2)	11(13.1)	10(19.6)	48(15.7)	2.800	
Program Development	15(15.8)	15(19.7)	19(22.6)	15(29.4)	64(20.9)		
administration	0(0)	3(4.0)	4(4.8)	1(1.9)	8(2.6)		
The other	1(1.0)	0(0)	0(0)	1(1.9)	2(0.7)		

^{*}p<.05, **p<.01

Table 6. Difference according to more needed subjects of college students

Catamary		Grade N(%)				
Category	1	2	3	Total	l/F	
Occupational Therapy for Neurological Disorders.	4(5.3)	6(8.4)	0(0.0)	10(5.4)		
Cognitive rehabilitation	11(14.7)	18(25.3)	9(23.1)	38(20.5)		
Community Practice in Occupational Therapy	14(18.7)	22(31.0)	6(15.4)	42(22.7)		
Evalu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7(9.3)	6(8.5)	2(5.2)	15(8.1)	.871**	
Counseling	21(28.0)	6(8.5)	4(10.2)	31(16.8)		
Program Development	17(22.7)	13(18.3)	14(35.9)	44(23.8)		
administration	1(1.3)	0(0.0)	4(10.2)	5(2.7)	•	

^{*}p<.05, **p<.01

차이를 보였다. 추가 교육 요구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나 (p=.046), 상담에서 21세 이하 10.6%, 22세 이상 5.5%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고, 프로그램 개발에서 21세 이하 9.8%, 22세 이상 12.1%로 차이를 보였다(Figure 6).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인식, 관심 및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인식도 조사결과 치매국가책임제(2.61±1.0), 치매안심센터(2.84±0.9), 치매안심센터에서의 작업치료사의 역할(2.94±0.9)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작업치료사의 세부적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은 행정(4.14±0.7), 가족 및 환자 상담(4.19±0.7), 재활 프로그램 운영(4.30±0.6)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치매와 관련한 국가정책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후 세부 업무역할에 대하여 얼마나알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치매안심센터의 취업에 대한 관심도는 3.42±0.9점,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향후 전망에서는 3.90±0.7점으로 보통이상으로 응답하였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인식도에 비해 비교적 관심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와 가장 관련이 높은 교육과 관련한 응답에서 학생들은 행정실무에 가장 낮은 응답율을 보였지만, Jeong, Park과 Hwang(2013)의 연구에 따르면 치매지원센터에서 작업치료사의 직무분석 결과 중요도와 수행 빈도에 있어 문서작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의 부담감이 큰 업무에대한 학생들의 인식 결과,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많았으며 행정 업무는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Cha와 Jeon(2012)의 연구에서 보건소와 치매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작업치료사로써 가장 부담이 큰 업무는 행정이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요구도와 관련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치매안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의 업무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교과목으로는 인지재활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추가되어야 할 교과목도 인지재활이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치매환자를 위한 작업치료사들의주요업무를 인지재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ee, Kim과 Han(2012)의 연구에서 병원에서 근무 중인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개 기관 중 55개의 기관에서 인지재활을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병원에서 인지재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학생들의 임상실습기관이 대부분 의료기관인 만큼비교적 인지재활을 접할 기회가 많아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인지재활이 다른 분야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Jeong, Park과 Hwang(2013)의 치매지원센터 직무분석에서 중요도 및 수행도가 가장높은 문서작업과 관련한 행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치매와 관련한 수업이수, 임상실습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임상실습이 충분성에 대한 응답은 실습경험이 많은 고학년들이 1학년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임상실습과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 실습기관이 지역사회기관에 비해 대학병원, 재활병원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Hong, & Hong, 2017; Lee et al., 2010). 따라서 실습경험이 있는 고학년일수록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하여 충분한 실습을 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전국 모든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못해 연구의 결과를 모든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일부지역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고, 492명의 많은 대상자에게 조사를 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인식, 관심 및 요구도를 조사함으로써 치매전문가로서 작업치료 전공교육과 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작업치료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의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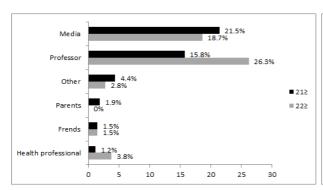
Ⅴ.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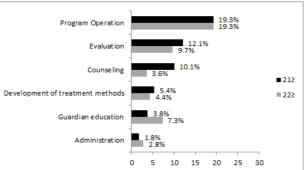
본 연구는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매안심 센터에 대한 인식, 관심 및 요구도를 조사하여 향후 치매 안심센터에서 작업치료를 제공하게 될 작업치료전공학생 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Table 7. Difference according to Age

Cotogogy	Δ		2			
Category	Age	Less than 2 points	3 points	4point or more	Χ-	
National Responsibility for Dementia	21≥	138(53.1)	73(28.1)	49(18.8)	11 007*	
National Responsibility for Dementia	22≤	90(38.8)	93(40.1)	49(21.1)	11.007	
Dementia Care Center	21≥	113(43.5)	81(31.2)	64(25.3)	15 013**	
Demenua Care Center	22≤	64(27.6)	104(44.8)	64(27.6)	10.010	
	21≥	34(13.1)	145(55.8)	81(31.1)	13.023*	
Interest to the Employment	22≤	20(8.6)	107(46.1)	105(45.3)	15.025	
Field work Sufficiency	21≥	41(15.8)	149(57.3)	70(26.9)	13.055*	
Field-work Sufficiency	22≤	62(26.7)	112(48.3)	58(25.0)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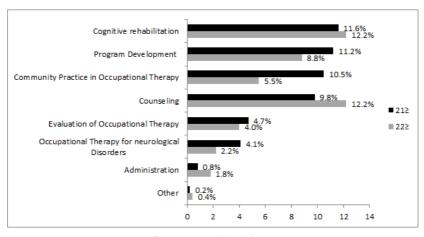
^{*}p<.05, **p<.01





A. Information source

B. Occupational therapist main Role



C. More needed subjects

Figure 6. Difference according to Age

설문에 참여한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은 치매안심센터에의 작업치료사의 역할은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나, 치매국가책임제와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한취업의사는 보통으로 나타났고, 향후센터 내 작업치료사의 전망은 보통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충분하지 않다고 나타났고, 임상실습의 충분도는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Cha와 Jeon(2012)은 지역사회에서 작업치료사는 대상 자와 지역사회 기관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건강증진, 건 강관리, 예방 및 교육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행정관련 업무, 프로그램 기획력 및 조직력 등에 대한 교

육과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으나 응답결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작업 치료사 직무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REFERENCE

- 김상우, 이채정. (2014).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 제.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보건복지부. (2017a).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세종: 보 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7b).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안). 세종: 보건복지부.
- Cha, Y. J., & Jeon, B. J. (2012). Job characteristics and factors affecting work orient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who take CBR based on the regional public health act: Focusing on public health centers and centers for dementi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0(3), 41-53.
- Choi, S. H. (2007). A Study on burden of families taking care of seniors suffering from dementia.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Hong, S. Y., & Hong, E. K. (2017). The influence of fieldwork on major skills required in clinical practice and self-efficacy of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6(4), 405-423.
- Hwang, M. K. (2018). A Study on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delivery system for implementing the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dementia - A Case of OECD Countries. Crisisonomy, 14(2), 57-70.
- Jeong, W. M., Park, C. S., & Hwang, Y. J. (2013). A study on job competency of community-based

- occupational therapists: Focusing on job analysis in dementia care cent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1(3), 15–29.
- Kim, K. H. (2015). Role stress and job satisfaction among employees in the local dementia centers.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 Kwak, K. P. (2018). Korean dementia observatory and national responsibility for dementia. Evidence and Values in Healthcare, 4(1), 1-9.
- Lee, H. R., Kim, J. Y., & Han, D. S. (2012). A Survey on the cognitive rehabilit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0(2), 73-84.
- Lee, H. S., Noh, J. S., Cha, J. J., Kim, S. R., Kim, S. K., Park, S. G., et al. (2010). The change of awareness of decision on employment through the fieldwork for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8(1), 109-121.
- Lee, J. A. (2016). An exploratory study on development strategies for dementia policy of korea based on dementia policy of Japa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1), 71-79.
- Oh, J. E. (2015). Direct medical costs for patients with dementia: based on aged patients sample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Suh, M. H., & Oh, K. S. (1993). A study of well-being in caregivers caring for chronically ill family memb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3(3), 467-486.
- Sunwoo, D. (2013). Germa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dementia care in Korea.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 72-79.

Abstract

The Survey on the Awareness, Interest and Need of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for the Dementia Care Center

Hong, So-Young*,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osin University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interest, and needs of the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for the dementia care center.

Methods: We conducted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of 492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nationwide from July 1 to 31, 2018.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interests and needs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One way ANOVA and chi-square test were conduct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tems according to grade and age.

Results: Lower awareness was found in National Responsibility for Dementia(2.61±1.0), Dementia Care Center(2.84±0.9) and role of an occupational therapist in the Dementia Care Center(2.94±0.9) of the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Interest to the employment was investigated between middle and high(3.42±0.9). Education was not sufficient(2.98±0.8), and the adequacy of fieldwork was moderate (3.07±0.8).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erved as basic data for enhancing competence as a specialist in the dementia care center. Also, it is expected to be a help to raise awareness of the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Key words: Awareness, Dementia care center, Interest, Need